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제재를 중심으로 -

정 한 기 · 김 용 재(전주교대)**

< 목 차 >

1. 머리말
2. 시조 교육의 양상
3. 시조 교육의 과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를 중심으로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시조 교육의 양상이다. 제1-4차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영역에 수록된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학습독자들이 민족적 감정을 파악하거나 마음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 동시 영역에 수록된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떠오른 느낌을 말하는 활동을 한다. 독서 감상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제5-6차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영역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내용·형식에 대한 지식이 학습독자에게 설명되고 동시 영역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중심 생각을 학습독자들이 찾는 활동을 한다. 갈래 지식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제7차-2015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영역은 있으나 참고자료로 간주되고 동시 영역에 수록된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학습독자들이 떠오르는 느낌(생각) 말하기, 일부분 바귀 쓰

* 2019년 전주교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제1저자: 정한기, 교신저자: 김용재.

기, 떠오르는 경험(장면) 말하기, 특징적인 표현 찾기, 화자의 관점(가치)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동시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둘째, 시조 교육의 과제이다. 시조 교육을 독립적으로 다룰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필요하다. 시조는 전통 시가로 자연과 교훈이란 전통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독자들이 시조에 나타난 자연과 교훈을 통하여 타자를 배려하고 자기를 이해·성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 시조는 정형 시가이기 때문에 학습독자들이 정해진 틀로 시를 쓰기에 용이하고, 운율을 익히기에 용이하며, 발견하는 능력과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시조의 형식에 대한 교육에서는 ‘4음보, 종장의 종결, 반행’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조의 내용에 대한 교육에서는 학습독자들이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의미’의 구조와 학습독자들이 성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갈등-해소’의 구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핵심어 : 시조, 시조 교육,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양상, 과제, 교육과정

1. 머리말

시조는 우리나라의 전통 정형 시가이다. 전통 시가라는 점에서 학습독자들이 온축된 선조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 유효하다. 노래로 불린 시가라는 점에서 운율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 유효하다. 정형 시가라는 점에서 학습독자들이 정제된 생각·정서를 수용하는 데에 유효하고, 정해진 틀로 시를 재창작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시조는 교육적인 효과가 큰 갈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는 ‘시조 교육’에 대한 독립된 영역이 없고, 고시조 작품은 산문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시조 교육이 필요한가? 이

러한 의문을 살펴보려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시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시조 교육에 대한 양상이 통시적으로 조감(鳥瞰)될 때 필요성이 밝혀질 것이다. 통시적 조감으로 필요성이 밝혀졌다면 시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시조 교육의 과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김선배 선생은 제1-5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조 교육을 소개하고, 시조의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조문학 연구자와 교사들이 협업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였다.¹⁾ 김명숙 선생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동시조 짓기를 하어야 한다고 하였다.²⁾ 신헌재 교수는 시조는 운율 교육과 창작 교육의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이고 시조 교육에서는 학년에 따라 학습 내용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 이정환·김선희·조미영 선생은 시조가 독립된 단원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 특히 이정환·김선희 선생은 교과서에 수록될 시조 작품은 어린이의 사고나 정서에 잘 부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시조는 민족 정서에 대한 교육에 유효하고 운율 교육과 창작 교육에 유효하므로 교육되어야 하고, 학년에 따른 교육 내용(운율, 감상, 창작 등)을 설정하고 제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더라도 학습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수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용되어야 하는가하는 점이 의문이다. 이러한 점

-
- 1)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6.
 - 2) 김명숙, 「초등학교 시조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3) 신헌재 교수는 저학년에서는 운율 교육이 중학년에서는 감상 교육이 고학년에서는 창작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헌재,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선칭어문』 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283-307면.
 - 4) 이정환, 「민족 정서의 이해와 습득을 위한 시조 교육」, 『청람어문교육』 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97-224면; 김선희, 「초등학교 시조 교육 활성화 방안」,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38면; 김선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시조 교육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6, 115-138면; 조미영, 「초등학교 시조 교재의 구성과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 교육』 34, 한국어문교육학회, 2007, 247-280면.

에서 본고에서는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양상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학습활동이 있는 제1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부터 2015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까지이다. 수록된 시조는 총 117편 138수이다.⁵⁾

시기	고시조	현대시조	총 편(총 수)
1차 교육과정(1955년 공포)	10편(10수)	3편(6수)	13편(16수)
2차 교육과정(1963년 공포)	9편(9수)	3편(7수)	12편(16수)
3차 교육과정(1973년 공포)	12편(12수)	5편(8수)	17편(20수)
4차 교육과정(1981년 공포)	6편(6수)	5편(6수)	11편(12수)
5차 교육과정(1987년 공포)	10편(10수)	7편(11수)	17편(21수)
6차 교육과정(1992년 공포)	15편(15수)	1편(4수)	16편(19수)
7차 교육과정(1997년 공포)	4편(4수)	7편(8수)	11편(12수)
2007 교육과정(2007년 공포)	2편(2수)	5편(6수)	7편(8수)
2009 교육과정(2009년 공포)	3편(3수)	4편(5수)	7편(8수)
2015 교육과정(2015년 공포)	2편(2수)	4편(4수)	6편(6수)
중, 편(수)	73편(73수)	44편(65수)	117편(138수)

2. 시조 교육의 양상

학습활동이 없는 교수요목기⁶⁾를 제외하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의 국어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은 크게 세 부분(제1-4차 교육과정, 제

- 5) 군정청학무국에서 교수요목(教授要目)을 공포한 1945년 9월에서 1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5년 8월 이전까지의 교수요목기에 간행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가운데 시조가 실린 교과서는 군정청학무국·조선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문교부, 『초등국어 5-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55; 문교부, 『초등국어 5-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55; 문교부, 『초등국어 6-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문교부, 『초등국어 6-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9이다. 고시조 16편(16수)이고, 현대시조 8편(22수) 총 24편(38수)이다.
- 6) 교수요목기의 국어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없이 단원의 제목과 작품만 배열되어 있다. 단원의 제목은 ‘제○과 시조 ○수’와 같이 시조 작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거나 ‘제○과 ○○○’와 같이 시조 작품의 제목을 표시한다.

5-6차 교육과정, 제7차-2015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각 부분에서의 양상을 살펴보자.

2.1. 독서 감상으로서 시조 교육

제1-4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록 단원	1차	2차	3차	4차
시조 영역	5. 시조 『국어6-2』(1차) ⁷⁾	6. 시조 『국어 6-2』(2차) ⁸⁾		
고 전 시 가 영역	4. 노래와 우리말 『국어 6-2』(1차)	7. 노래와 표현 『국어 6-1』(2차) ⁹⁾	7(1) 노래와 표현 『국어 6-2』(3차) ¹⁰⁾	
동시 영역	4. 노래 네 편 『국어 4-2』(1차) ¹¹⁾		2. 가을의 노래 『국어 5-2』(3차) ¹²⁾ 5(1) 우리노래 『국어 6-1』(3차) ¹³⁾ 7. 시의 세계 『국어 6-1』(3차)	1. 우리들의 노래 『국어 5-1』(4차) ¹⁴⁾ 3. 가을의 노래 『국어 5-2』(4차) ¹⁵⁾ 3. 노래하는 마음 『국어 6-1』(4차) ¹⁶⁾ 4. 노래하는 마음 『국어 6-2』(4차) ¹⁷⁾
산문 영역 ¹⁸⁾	12. 남해에서 『국어 6-1』(1차) ¹⁹⁾	3. 꽃을 보며 『국어 6-1』(2차)	3(1) 꽃을 보며 『국어 6-1』(3차) 4(2) 남해에서 『국어 6-1』(3차)	6(1) 고적을 찾아 『국어 6-1』(4차)

7) 문교부, 『국어 6-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6. 문교부, 『국어 6-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6는 이하 『국어 6-2』(1차)로 약칭한다.

제1-4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서 시조 교육은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 고전시가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 동시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 산문 영역에서의 시조 등이 있다. 산문 영역에 있는 시조는 작가가 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하다가 느낀 바를 시조로 표현한 것으로 시조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조 작품이 시조 영역뿐만 아니라 동시 영역, 고전시가 영역, 산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조가 독서 자료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조 영역, 동시 영역, 고전시가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8)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는 『국어 6-2』(2차)로 약칭한다.
 - 9)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는 이하 『국어 6-1』(2차)로 약칭한다.
 - 10)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은 이하 『국어 6-2』(3차)로 약칭한다.
 - 11) 문교부, 『국어 4-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문교부, 『국어 4-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는 이하 『국어 4-2』(1차)로 약칭한다.
 - 12)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은 이하 『국어 5-2』(3차)로 약칭한다.
 - 13)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은 이하 『국어 6-1』(3차)로 약칭한다.
 - 14) 문교부, 『국어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는 이하 『국어 5-1』(4차)로 약칭한다.
 - 15)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는 이하 『국어 5-2』(4차)로 약칭한다.
 - 16)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는 이하 『국어 6-1』(4차)로 약칭한다.
 - 17)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는 이하 『국어 6-2』(4차)로 약칭한다.
 - 18)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국어 6-1』(1차), 110면; <수줍어 수줍어서> 『국어 6-1』(2차), 23면; <수줍어 수줍어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국어 6-1』(3차), 49-79면; <가야금 맑은 소리> 『국어 6-1』(4차), 132면.
 - 19) 문교부, 『국어 6-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9. 문교부, 『국어 6-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9는 이하 『국어 6-1』(1차)로 약칭한다.

시조 영역에서의 학습활동20)
 내용(마음) 파악하기21)
 내용(민족적 감정) 파악하기22)
 시조의 형식적 특징 찾기

고전시가 영역에서의 학습활동23)
 내용 파악하기(떠오른 마음 말하기)24)
 내용(민족 특색) 파악하기25)
 동시 영역에서의 학습활동26)

-
- 20) <태산이 높다하되> <오백 년 도읍지를> <지당에 비 뿌리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마을 사람들아> <이고 진 저 늙은이> <별> <봉숭아> 『국어 6-2』(1차), 35-38면; <태산이 높다하되> <오백 년 도읍지를> <지당에 비 뿌리고> <마을 사람들아> <이고 진 저 늙은이> <가노라 삼각산아> <별> <봉숭아> 『국어 6-2』(2차), 52-55면.
- 21) <태산이 높다하되> <오백 년 도읍지를> <지당에 비 뿌리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마을 사람들아> <이고 진 저 늙은이> <별> <봉숭아> 『국어 6-2』(1차), 35-38면. 5. 시조 **시조에 나타난 마음**을 살펴봅시다. 시조는 대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조에 쓰인 말의 **표현**을 맞봅시다.
- 22) <태산이 높다하되> <오백 년 도읍지를> <지당에 비 뿌리고> <마을 사람들아> <이고 진 저 늙은이> <가노라 삼각산아> <별> <봉숭아> 『국어 6-2』(2차), 52-55면. 6. 시조 ○ 시조를 읽고 시조의 특색을 살펴보자. 시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 옛 시조를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나?, 시조에는 **우리 민족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 시조의 **표현이 묘한 점**은 어떤 점인가?
- 23)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2』(1차), 22-34면;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1』(2차), 62-71면;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2』(3차), 112-121면.
- 24)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1』(2차), 62-71면. 우리 노래 7. 노래와 표현 ○ 노래와 표현을 읽고 다음과 같은 구절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 있는지 찾아보자. /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2』(3차), 112-121면. 7. 시의 세계 (1) 노래와 표현 1. 글을 읽고 이야기하기 (1) '노래와 표현'을 읽고 다음과 같은 구절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 있는지 찾아보자.
- 25) <동창이 밝았느냐> <하여가> <단심가> 『국어 6-2』(1차), 22-34면. 우리말 우리 노래 4. 노래와 우리말 노래에 나타난 **우리 겨레의 특색**을 살펴봅시다.
- 26) <기러기> 『국어 4-2』(1차), 24-29면; <오백 년 도읍지를> <이고 진 저 늙은

(구절, 상황 파악하기 → 내용(중심 생각) 파악하기²⁷)

내용 파악하기(떠오른 느낌 말하기) → 시조 짓기(시조 모으기)²⁸)

시조 영역에서 학습활동은 시조의 내용 파악하기, 시조의 형식 찾기 등이
다. 시조의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활동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마음을 파악하는

이> <가을> 『국어 5-2』(3차), 32-33면; <까마귀 검다하고> <동창이 밝았느냐>
<그날의 하늘처럼> <살구꽃 핀 마음> 『국어 6-1』(3차), 88-89면; <태산이 높다
하되> <지당에 비 뿌리고> <마을 사람들아> <가노라 삼각산아> <별> <봉숭
아> 『국어 6-2』(3차), 122-129면; <아버이 살아실 제> <가노라 삼각산아> 『국
어 5-2』(4차), 62-69면; <까마귀 검다 하고> <동창이 밝았느냐> <그 날의 하늘
처럼>(한산도의 밤), <살구꽃 핀 마음은>(살구꽃 핀 마을) 『국어 6-1』(4차),
62-69면.

27) <아버이 살아실 제> <가노라 삼각산아> 『국어 5-2』(4차), 62-69면. 3. 가을의
노래 옛 시조 두 편 1. 내용알기 <옛 시조 두 편> (1) 각 시조의 **중심 생각**을
알아보자. (2) 옛말의 뜻을 알아보자. (3) 둘째 편 시조를 썼을 때의 **나라 형편**을
알아보자. / <까마귀 검다 하고> <동창이 밝았느냐> <그 날의 하늘처럼>(한산
도의 밤), <살구꽃 핀 마음은>(살구꽃 핀 마을) 『국어 6-1』(4차), 62-69면. 3. 노
래하는 마음 시조 1. 내용알기 <시조> (1) 첫째 시조의 백로는 어떤 사람을 비
유하였나? (2) ‘속이 검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인가? (3) 둘째 시조의 때는 하루
중 언제인가? (4) ‘한산도의 밤’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 (5) ‘살구꽃 핀 마을’의
중심 생각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6) 시조에서는 어떤 운율이 쓰이는가?

28) <오백 년 도읍지를> <이고 진 저 늙은이> <가을> 『국어 5-2』(3차), 32-33면
2. 가을의 노래 (2) 시조 1. 글을 읽고 이야기하기 (2) **시조를 읽고 느낌을 이야
기해 보자.** ○ 각각 무엇을 나타냈나? ○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2. 시를 모아서
읽어보기 (2) **좋아하는 시조를 모아 보자.** ○ 옛 시조를 모아서 읽어 보자. ○
현대 시조를 모아서 읽어 보자. / <까마귀 검다하고> <동창이 밝았느냐> <그
날의 하늘처럼> <살구꽃 핀 마음> 『국어 6-1』(3차), 88-89면. 5. 우리노래 (1)
우리노래 시조 1. 글을 읽고 이야기하기. (1) **시조 네 편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
해 보자.** ○ 4편의 시조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었나 알아보자. ○ 4편의 시조를
읽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 ○ 옛 시조 2편과 현대시조 2편을 가려내어서
이야기해 보자 2. 노래 모으기 (2) 시조를 지어 보자. **각기 글감을 골라 시조를
지어보자.** 지은 시조를 읽어 보고 이야기해 보자. / <태산이 높다 하되> <지당
에 비 뿌리고> <마을 사람들아> <가노라 삼각산아> <별> <봉숭아> 『국어
6-2』(3차), 122-129면. 7. 시의 세계 (3) 시조 1. 글을 읽고 이야기하기 (2) ‘시의
세계’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 옛 시조 네 편과 현대 시조 두 편은 각
각 무엇을 읊었나? 2. 시짓기 (2) **각기 글감을 골라서 동시나 시조를 지어 보
자.**

것, 시조에 나타난 민족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 등이 있다. 마음이나 감정은 추상이다. 작품을 읽을 후의 감상에 가깝다. 독서 감상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시조의 형식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없다. 고전시가 영역에서의 학습활동은 시조를 읽고 떠오르는 마음을 말하는 것, 시조에 나타난 민족의 특색을 파악하는 것 등이다. 작품을 읽은 후의 감상에 가깝다. 동시 영역에서는 동시와 시조를 함께 실고 있지만 동시는 작품의 제목을 제시하고 시조는 '시조'라 명시하여 두 갈래를 구분하고 있다. 학습활동에서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 떠오른 느낌을 말하는 것 등이 있다. 독서 감상의 성격이 강하다.

제1-4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감상으로서 시조 교육이 진행되었다. 파악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학습독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2.2. 갈래 지식으로서의 시조 교육

제5-6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차	6차
시 조 영역	8. 옛 시조 감상 『읽기 5-2』(5차) ²⁹⁾ 12. 우리의 옛시조 『읽기 6-1』(5차) ³⁰⁾ 11. 우리 가락의 멋 『읽기 6-2』(5차) ³¹⁾	8. 우리 가락의 멋 『말하기·듣기·쓰기 5-2』(6차) ³²⁾ 14. 선인들의 노래 『읽기 6-1』(6차) ³³⁾
동 시 영역	10. 생활과 시 『읽기 5-1』(5차) ³⁴⁾ 1. 가을의 노래 『읽기 5-2』(5차)	

29)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는 이하 『읽기 5-2』(5차)로 약칭한다.

30)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는 이하 『읽기 6-1』(5차)로 약칭한다.

제5-6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서는 ‘고전시가 영역’과 ‘산문 영역’이 없고, ‘시조 영역’에서는 시조 작품에 대하여 내용과 형식을 설명하고, 동시 영역에서는 동시와 시조의 구분이 없다. 시조 영역에서의 학습활동과 동시 영역에서의 학습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조 영역에서의 학습활동³⁵⁾

시조 내용에 대한 설명³⁶⁾, 시조 형식에 대한 설명³⁷⁾.

(분위기 파악하기 → 내용(중심 생각) 파악하기³⁸⁾)

한다.

- 31)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는 이하 『읽기 6-2』(5차)로 약칭한다.
- 32) 교육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교육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는 이하 『말하기·듣기·쓰기 5-2』(6차)로 약칭한다.
- 33) 교육부, 『국어 읽기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교육부, 『국어 읽기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는 이하 『읽기 6-1』(6차)로 약칭한다.
- 34)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는 이하 『읽기 5-1』(5차)로 약칭한다.
- 35) <철령 높은 봉에> <오면 가려 하고> <잘 가노라 단지 말며> <마을 사람들 아> 『읽기 5-2』(5차), 71-78면; <하여가> <단심가> <십 년을 경영하여> <셋별 지자 종다리 떴다> 『읽기 6-1』(5차), 121-126면; <바다 앞에서> <가을> <산새> 『읽기 6-2』(5차), 101-106면; <단심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태산이 높다 하되>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이고 진 저 늙은이> <바둑판같이 엮은 사람아> <셋별 지고 종다리 떴다> 『읽기 6-1』(6차), 145-152면.
- 36) 『읽기 5-2』(5차), 71-77면; 『말하기 듣기 쓰기 5-2』(6차), 61-68면.
- 37) 『읽기 6-1』(6차), 145-152면.
- 38) <하여가> <단심가> <십 년을 경영하여> <셋별 지자 종다리 떴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바둑판같이 엮은 사람아> 『읽기 6-1』(5차), 121-126면. 12. 우리의 옛시조 ○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시조 (1)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시조 (2)에 담긴 지은이의 **굳은 생각**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시조 (3)과 시조 (4)를 각각 분위기에 맞게 읽어 보자. 4. 시조 (5)와 시조 (6)을 각각 분위기에 맞게 읽어 보자. 5. 시조 (1), (2), (3), (4)와 시조 (5), (6)

경험 떠올리기 → 경험이 담긴 시조 짓기³⁹⁾

동시 영역에서의 학습활동⁴⁰⁾

(구절·모습 파악하기 → 감동을 주는 이유 생각하기⁴¹⁾)

(구절·정경 파악하기 → 내용(중심 생각) 파악하기⁴²⁾)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에서는 시조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지식이 설명되고 있다. 시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조는 우리 민족의 생활 체험에서의

은 형식이 각각 어떠한지 알아보자. / <바다 앞에서> <가을> <산새> 『읽기 6-2』(5차), 101-106면. 11. 우리 가락의 멋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바다 앞에서>와 <가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떠한지 말해 보자. 2. <가을>에서 사물을 사람처럼 나타낸 부분을 찾아보자. 3. <산새>에서 산새가 하는 행동을 짝을 이루듯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자. 4. **중심 생각**을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어보자.

39)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오면 가려 하고> <간밤 오던 비에> <쟁반 위의 조홍감이> <세상 사람들이> <할머니 말씀> 『말하기 듣기 쓰기 5-2』(6차), 61-68면. ○ 일상 생활의 경험을 시조로 지어 보자. ○ 일상 생활의 경험이 시조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자.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2. 우리 조상들의 생활 감정이나 멋스러움을 생각하며 위에 나오는 두 시조를 낭송하여 보자. ○ 시조의 내용과 관련된 일상 생활의 경험을 말하여 보자. 1. 박인로의 효성을 듣고 시조 <쟁반 위의 조홍감이>와 관련지어 보자. 2. 시조 <세상 사람들이>를 읽고, 시조의 내용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을 말하여 보자. ○ 일상 생활의 경험을 시조로 지어 보자. 1. 시조의 형식을 생각하며 <할머니 말씀>을 읽어 보자. 2.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조를 지어 보자. 3. 자기가 지은 시조를 발표하여 보자.

40) <분꽃> <급행차> 『읽기 5-1』(5차), 89-96면; <봉선화> <강강술래> 『읽기 5-2』(5차), 5-10면.

41) <분꽃> <급행차> 『읽기 5-1』(5차), 89-96면. ○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3. <분꽃>에서 “살포시 그 잠을 깨어 방글방글 웃는다”라는 표현은 분꽃의 어떤 모습을 노래한 것인지 알아보자. 4. <급행차>에서 첫행 급행차에 대한 사실대로의 관찰이라면 지은이의 당부가 담겨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자. 5. 네 편의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2) <봉선화> <강강술래> 『읽기 5-2』(5차), 5-10면. ○ 다음 내용을 생각하며 시를 바르게 읽어 보자. 5. <봉선화>는 앞의 시들과 어떻게 다른가? 6. <강강술래>는 어떤 정경을 노래한 것인가? 7. 각 시에서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정서와 교훈을 표현한 것으로 ‘귀양 가는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것, ‘아기는 신하가 관직을 그만두고 떠나려는 상황’에서 신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 비가 온 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상황에서 즐거움을 표출한 것, 생활 체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달한 것 등이 예라고 하였다.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는 시조는 3장 6구 12마디이고 한 마디의 글자 수는 보통 3-4자이고 종장의 첫 구는 앞마디를 3자로 하고 뒷마디를 5자 이상으로 하여 운율의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학습활동에는 시조를 읽고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시조를 짓는 것,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형식이 다른 것을 아는 것⁴³⁾ 등이 있다. 시조의 특징이 내용과 형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갈래 지식으로서의⁴⁴⁾ 시조 교육이다. 시조의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는 중심 생

43) <까마귀 검다하고> <단심가> <태산이 높다하되>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이고 진 저 늙은이> <말하기 좋다 하고> <마둑관같이 엮은 사람아> 『읽기 6-1』(6차), 145-152면. ○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시조를 낭독하여 보자. ◎ 시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낭독하여 보자. 1. 시조의 형식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2.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글에 나오는 두 시조는 형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형식이 비슷한 시조는 어느 것인가?**

44)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내용 체계를 지식, 수용과 생산, 태도 등으로 나누었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내용 체계 가운데 핵심개념을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었다. 2009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에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 등이 포함된 점을 보아 2015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는 지식에 해당한다. 수용과 생산에는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이해, 감상, 비평, 창작 등이 포함되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의 내용·형식·표현, 작품의 맥락, 작가와 독자 등이 포함된다. 학습독자들의 활동은 크게 지식, 수용·생산, 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과 수용·생산의 개념은 무엇인가? 2009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에서는 학습자들이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정서를 함양한다고 하였고, 2015 교육과정의 국어과 성격에서는 학습자들이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지식과 수용·생산은 학습독자들의 활동과 관련되고, 지식은 학습독자들이 전달받는 것이고, 수용·생산은 학습독자들이 스

각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 마음·감정을 파악하는 것에 비하여 구체화되었다. 동시 영역에서는 동시와 시조의 구분이 없이 작품을 수록하고, 동시와 시조의 구분 없이 학습활동을 한다.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학습목표인 경우 동시와 시조의 구분 없이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를 생각하는 활동을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학습목표인 경우 동시와 시조의 구분 없이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는 감동을 주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과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마음·감정을 파악하는 것에 비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제5-6차 교육과정에서는 갈래 이해로서의 시조 교육이 진행되었다. 내용 파악과 관련된 활동은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제1-4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이 세밀화되어야 하고, 학습독자들이 수용하는 활동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2.3. 동시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

제7차-2015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단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차	2007	2009	2015
시조 영역	1. 마음 ○셈터 『읽기 6-2』(7차) ⁴⁵⁾	1. 문학 ○놀이터 『읽기 5-1』(2007) ⁴⁶⁾ 7. 문학 ○놀이터 『읽기 6-2』(2007) ⁴⁷⁾	12. 문학의 갈래 ○놀이며 생각하며 『국어활동 6-1』 (2009) ⁴⁸⁾	
동	1. 상상의 날개	1. 문학 즐거움	3. 마음을 담아서	1. 재미가 톡톡톡

스로 하는 것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학습독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을 ‘수용 활동’으로 약칭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3-6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1-10면.

시 영 역	『읽기 1-2(7차)』 ⁴⁹⁾ 5. 상상의 나라 『말하기·듣기 2-1』 (7차)』 ⁵⁰⁾ 2. 고운 꿈 『읽기 4-1』(7차)』 ⁵¹⁾ 3. 삶의 향기 『말하기·듣기·쓰기 5-1』(7차)』 ⁵²⁾ 3. 경험 ○쉽터 『읽기 5-2』(7차)』 ⁵³⁾	『읽기 5-1』(2007) 7. 상상의 날개 『듣기·말하기·쓰기 5-1』(2007)』 ⁵⁴⁾ 7. 이야기와 삶 『읽기 5-2』(2007)』 ⁵⁵⁾	『국어 2-2』(2009)』 ⁵⁶⁾ 1. 감동을 나누어요 『국어 3-1』(2009)』 ⁵⁷⁾ 12. 문학 즐거움 『국어 5-1』(2009)』 ⁵⁸⁾ 1. 비유적 표현 『국어 6-1』(2009)』 ⁵⁹⁾	『국어 3-1』(2015)』 ⁶⁰⁾ 4. 감동을 나타내 요 『국어 3-2』(2015)』 ⁶¹⁾ 2. 작품을 감상해 요 『국어 5-1』(2015)』 ⁶²⁾ 1. 비유하는 표현 『국어 6-1』(2015)』 8. 인물의 삶 『국어 6-1』(2015)』 ⁶³⁾
읽 기 영 역 (64)	4. 이리보고 『읽기 5-1』(7차)			

- 45)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읽기 6-2』(7차)로 약칭한다.
- 46)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1』,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1』, 미래엔, 2013은 이하 『읽기 5-1』(2007)로 약칭한다.
- 4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6-2』,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6-2』, 미래엔, 2013은 이하 『읽기 6-2』(2007)로 약칭한다.
- 48) 교육부, 『국어활동 6-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활동 6-1』, 미래엔, 2015는 이하 『국어활동 6-1』(2009)로 약칭한다.
- 49)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읽기 1-2』(7차)로 약칭한다.
- 50)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말하기·듣기 2-1』(7차)로 약칭한다.
- 51)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읽기 4-1』(7차)로 약칭한다.
- 5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말하기·듣기·쓰기 5-1』(7차)로 약칭한다.
- 53)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은 참고자료로 간주되고, 동시 영역에서 동시와 시조가 통합적으로 교육된다. 다음은 시조 영역에서의 학습활동이다.

시조 영역에서의 학습활동⁶⁵⁾

-
- 『국어 읽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읽기 5-2』(7차)로 약칭한다.
- 54)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5-1』,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5-1』, 미래엔, 2013은 『듣기·말하기·쓰기 5-1』(2007)로 약칭한다.
- 55)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2』,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2』, 미래엔, 2013은 이하 『읽기 5-2』(2007)로 약칭한다.
- 56) 교육부, 『국어 2-2』,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2-2』, 미래엔, 2015는 이하 『국어 2-2』(2009)로 약칭한다.
- 57)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5는 이하 『국어 3-1』(2009)로 약칭한다.
- 58)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5는 이하 『국어 5-1』(2009)로 약칭한다.
- 59)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5는 이하 『국어 6-1』(2009)로 약칭한다.
- 60)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8.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8은 이하 『국어 3-1』(2015)로 약칭한다.
- 61) 교육부, 『국어 3-2』, 미래엔, 2018. 교육부, 『국어 3-2』, 미래엔, 2018은 이하 『국어 3-2』(2015)로 약칭한다.
- 62)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9.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9는 이하 『국어 5-1』(2015)로 약칭한다.
- 63)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9.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9는 이하 『국어 6-1』(2015)로 약칭한다.
- 6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142-143면. 시조 작품은 <하여가> <단심가>이다. 학습목표는 “글의 종류를 생각하며 알맞은 방법으로 글을 읽어 봄시다”이고 제재에는 논설문(<이런 점은 고쳐 주세요>)과 고시조이다. ‘주장하는 글’이라는 글의 종류에 맞게 작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읽기 영역에 해당하고 고시조가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는 『읽기 5-1』(7차)로 약칭한다.
- 65) <태산이 높다 하되> <이고 진 저 늙은이> <친구야 눈빛만 봐도> 『읽기 6-2』(7차) ○ 쉼터 시조, 44-45면; <함박눈이 내리던 날> 『읽기 5-1』(2007) ○ 놀이터

시조의 형식 → 시조 짓기

시조 영역의 학습활동에서는 시조의 형식을 익히는 활동을 한 다음 시조를 짓는 활동을 한다. 학습독자들이 시조 형식에 대한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활동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시조의 형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시조를 짓는 활동이 있다.⁶⁶⁾ 하지만 시조 형식에 대한 보기가 없고 직접 표시하는 활동이 없어, 학습독자들이 형식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시조의 형식은 3장이고 각 장은 3-4자 정도이며 네 개의 마디라고 하였다. 반행(2음보)과 종장의 종결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7 교육과정에서 시조 형식에 대한 교육에서는 보기가 있고, 보기를 활용하여 시조를 짓는 활동이 있다. 학습독자가 보기를 참조하여 직접 표시해봄으로써 형식을 수용하기에 수월하고, 보기가 있어 시조 짓기에도 용이하다. 시조의 형식과 관련된 보기에는 음보 표시(∨), 반행 표시(/), 마지막 휴지 표시(/), 종장 첫 음보 세 글자 표시 등이 있다.⁶⁷⁾ 반행과 종장의 종결에 대한 고려가 있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형식에 대한 보기와 설명이 있고, 보기를 활용하여 시조를 짓는 활동이 있다.⁶⁸⁾ 학습독자가 보기를 참조하여 직접 표시해봄으로써 형식을

시조야 놀자, 34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고 진 저 늙은이> 『읽기 6-2』(2007) ○ 놀이터 시조에 제목을 붙여주자, 194면; <태산이 높다 하되> 『국어활동 6-1』(2009) ○ 놀며 생각하며, 267면.

66) <태산이 높다 하되> <이고 진 저 늙은이> <친구야, 눈빛만 봐도> 『읽기 6-2』(7차) ○ 쉽터, 44-45면. ○ 시조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가 담겨 있는 우리 고유의 시가입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3-4자 정도로 된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조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다음 시조를 감상하여 봅시다. ○ 다음은 종장을 2행으로 나눈 현대 시조입니다. 내용과 분위기에 맞게 낭독하여 봅시다. ○ **시조의 형식을 생각하며 ‘친구’를 주제로 하여 한 편의 시조를 지어 봅시다.**

67) <함박눈 내리던 날> 『읽기 5-1』(2007) ○ 놀이터. 시조야, 놀자, 34면. **다음 보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고, 내 경험을 살펴 시조로 표현하여 봅시다.**

68) <태산이 높다 하되> 『국어활동 6-1』(2009) ○ 놀며 생각하며, 267면. 시조를 바꾸어 표현하기. ○ 시조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가 담겨 있는 우리 고유의 시가입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서너 자 정도로 된

수용할 수 있고, 보기가 있어 시조 짓기에도 용이하다. 시조는 3장이고 각장은 3-4자 정도이고 네 개의 마디라고 하였고, 보기에는 음보 표시(/)만 있다. 반행과 종장의 종결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제7차 - 2015 교육과정의 시조 교육에서는 보기가 있어 시조 형식을 수용하는 활동, 시조를 짓는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조 교육이 참고자료로 간주되고, 내용에 대한 교육이 없고, 반행과 종장 종결이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 다수이다. 다음은 동시 영역에서의 학습활동이다.

동시 영역에서의 학습활동⁶⁹⁾

순번		7차	2007	2009	2015
1	떠오르는 느낌(생각) 말하기 ⁷⁰⁾	느낌, 생각	생각·느낌	느낌	
2	일부분 바꿔 쓰기 ⁷¹⁾	바꿔 쓰기	바꿔 쓰기		(비유로 바꿔 쓰기)
3	떠오르는 경험(장면) 말하기 ⁷²⁾	(경험→)장면 (친구와 경험)	(함박눈 경험)	경험	경험
4	특징적인(인상적인)		인상적		감각적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조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다음 시조를 감상하여 봅시다. ○ **시조의 형식을 생각하며 (보기)와 같이 시조의 내용을 새롭게 표현하여 봅시다.**

- 69) <매미> 『읽기 1-2』(7차), 6면; <잠자리> 『말하기·듣기 2-1』(7차), 80-81면; <주사 맞던 날> 『읽기 4-1』(7차), 48-49면; <친구 생각> 『말하기·듣기·쓰기 5-1』(7차), 70-71면; <가을> <가을 산빛이> 『읽기 5-2』(7차) ○ 쉼터 가을생각, 132-133면; <풀잎과 바람> <비 오는 날> 『읽기 5-1』(2007), 12-13면; <친구 생각> <봄송아> 『듣기·말하기·쓰기 5-1』(2007), 146면; <새알 만져 보기> <혀 밑에 도끼> 『읽기 5-2』(2007), 163-165면; <송편 빛는 밤> 『국어 2-2』(2009), 73면; <봄 오는 소리> 『국어 3-1』(2009), 8-11면; <훈민가> 2편 『국어 5-1』(2009), 302-304면; <풀잎과 바람> <혀 밑에 도끼> 『국어 6-1』(2009), 18-39면; <소나기> 『국어 3-1』(2015), 36-37면; <공을 차다가> 『국어 3-2』(2015), 121면; <허리 밟기> 『국어 5-1』(2015), 71-73면; <풀잎과 바람> 『국어 6-1』(2015), 40-43면; <하여가> <단심가> 『국어 6-1』(2015), 264-265면.

	표현 찾기 ⁷³⁾		부분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표현 비유적 표현
5	화자의 관점(가치) 파악하기 ⁷⁴⁾			화자의 관점	인물의 가치

- 70) <매미> 『읽기 1-2』(7차), 6면.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 / <가을> <가을 산빛이> 『읽기 5-2』(7차) ○ 쉼터, 132-133면. 여러분은 가을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시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멋진 생각이 떠올랐나요? 그럼 시처럼 한번 표현해 볼까요? / <새알 만져 보기> <혀 밑에 도끼> 『읽기 5-2』(2007), 163-165면.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읽는 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봅시다. ○ **시에 나타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 <봄 오는 소리> 『국어 3-1』(2009), 8-11면. 시를 암송하고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으면 작품에 대한 느낌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느낌을 살려 시를 암송하고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 시를 암송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1.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하며 <봄 오는 소리>를 읽어 봅시다. 2. <봄 오는 소리>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3. <봄 오는 소리>를 다시 읽고 **떠오른 느낌**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4. <봄 오는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송하여 봅시다. 5. <봄 오는 소리>의 한 연을 낭송하여 봅시다.
- 71) <주사 맞던 날> 『읽기 4-1』(7차), 48-49면.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말할 수 있다. 시를 읽고, **시의 일부를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시의 일부를 바꾸어 표현하여 봅시다. / <친구 생각> 『말하기·듣기·쓰기 5-1』(7차), 70-71면. **시나 이야기의 일부분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내가 겪은 일을 떠올리며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봅시다. / <봉숭아> 『듣기·말하기·쓰기 5-1』(2007), 146면. 이야기의 주제나 목적 등을 생각하며 알맞은 인물이나 배경, 사건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특히 사건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꾸며 봅시다. 그리고 전체 내용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써 봅시다. ○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봅시다.
- 72) <잠자리> 『말하기·듣기 2-1』(7차), 80-81면. 시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할 수 있다.** ○ 시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말하여 봅시다. / <송편 빛는 밤> 『국어 2-2』(2009), 73면. 글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실감나게 읽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시나 노래로 표현하고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 이 시를 읽으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 <허리 뺨기> 『국어 5-1』(2015), 71-73면.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동시와 시조의 구별이 없다.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이 동시와 시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동시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까지 공통되는 학습활동은 일부분을 바꿔 쓰는 활동, 떠오르는 경험(장면)을 말하는 활동, 특징적인 표현을 찾

-
- 73) <풀잎과 바람> <비 오는 날> 『읽기 5-1』(2007), 12-13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그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 ○ 풀잎과 바람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 / <풀잎과 바람> <혀 밑에 도끼> 『국어 6-1』(2009), 18-39면. 비유적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이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와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6.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풀잎과 바람>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7. 비유적 표현이 있는 시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읽어 봅시다. 1.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혀 밑에 도끼>를 낭송하여 봅시다. / <소나기> 『국어 3-1』(2015), 36-37면. **감각적인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작품을 읽어 봅시다. ○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1. 비 오는 날의 느낌을 떠올리며 <소나기>를 읽어 봅시다. 2. <소나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봅시다. 3. <소나기>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봅시다. / <공을 차다가> 『국어 3-2』(2015), 121면.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시나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 ○ 공을 칠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 <풀잎과 바람> 『국어 6-1』(2015), 40-43면.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 읽기. 6.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풀잎과 바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7. <풀잎과 바람>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8. <풀잎과 바람>에 나오는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봅시다.
- 74) <훈민가> 2편 『국어 5-1』(2009), 302-304면. 문학 작품 속의 말하는이를 찾아보고, **말하는이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하며 작품을 읽어 봅시다. ○ 작품에서 말하는이의 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훈민가>를 읽어 봅시다. 2. <훈민가>를 읽고 말하는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3. 작품에서 말하는이의 관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하여 봅시다. / <하여가> <단심가> 『국어 6-1』(2015), 264-265면.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봅시다. ○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1.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하여가>와 <단심가>를 읽어 봅시다. 2. <하여가>와 <단심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3. <하여가>와 <단심가>에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4.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을 말해 봅시다.

는 활동 등이다. 일부분을 바꿔 쓰는 활동의 예는 <주사 맞던 날>의 일부분을 바꿔 쓰는 것(『읽기 4-1』 7차), <친구 생각>의 일부분을 바꿔 쓰는 것(『말하기·듣기·쓰기 5-1』 7차), <봉숭아>의 일부분을 바꿔 쓰는 것(『듣기·말하기·쓰기 5-1』 2007) 등이다. 일부분을 바꿔 쓰는 활동은 2015 교육과정에도 있다. 『국어 6-1』(2015)의 <풀잎과 바람>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찾고 비유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활동이 그 예이다. 제1-4차 교육과정에서의 시조 바꿔 쓰기는 학습독자가 글감을 자유롭게 생각하여 시조를 짓는 것으로 본문 작품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본문의 작품과 연계된 것이다. 떠오르는 경험(장면)을 말하는 활동의 예는 <송편 빛는 밤>을 읽고 경험을 떠올리는 것(『국어 2-2』 2009), <허리 밟기>를 읽고 경험을 떠올리는 것(『국어 5-1』 2015) 등이다. 떠오르는 경험을 말하는 활동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에도 있다. 『말하기·듣기 2-1』(7차)의 <잠자리>에서 잠자리 쫓던 경험을 살려 장면을 생각하는 것, 『읽기 4-1』(7차)의 <주사 맞던 날>에서 주사 맞던 일을 생각하며 바꿔 쓰는 것, 『말하기·듣기·쓰기 5-1』(7차)의 <친구 생각>에서 친구와 겪은 일을 생각하며 바꿔 쓰는 것, 『읽기 5-1』(2007)에서 함박눈 내리던 날의 경험을 생각하며 바꿔 쓰는 것 등이 예이다. 7차·2007 교육과정에 있던 활동이 2009 교육과정 이후에는 학습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해진다. 특징적인 표현을 찾는 활동의 예는 <풀잎과 바람>·<허 밑에 도끼>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는 것(『국어 6-1』 2009), <소나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는 것(『국어 3-1』 2015), <공을 차다가>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는 것(『국어 3-2』 2015), <풀잎과 바람>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는 것(『국어 6-1』 2015) 등이다. 2007 교육과정에도 있다. 『읽기 5-1』(2007)의 <풀잎과 바람>에서 비유를 통한 새로운 표현을 찾는 활동이 그 예이다.⁷⁵⁾ 2007 교육과정부터 있던 활동이 2009 교육과정 이후에는 학습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해졌고, 비유적 표현만 찾던 활동에서 감각적인 표현·비유적인 표현을 찾는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7차·2007 교육과정에는 떠오른 느낌(생각)을 말하는 활동이, 2009·2015

75) 『읽기 5-1』(2007), 8면.

교육과정에는 화자의 관점(가치)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다. 떠오른 느낌(생각)을 말하는 활동의 예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하는 것(『읽기 1-2』 7차), 떠오른 느낌을 말하는 것(『국어 3-1』 2009),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읽기 5-2』 7차), 시에서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읽기 5-2』 2007) 등이다. 시조를 읽은 뒤의 느낌, 인상, 생각 등이다. 독서 감상에 가깝다. 화자의 관점(가치)을 파악하는 활동의 예는 <훈민가>에서 말하는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국어 5-1』 2009), <하여가>·<단심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국어 6-1』 2015) 등이다. 작품의 주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제1-4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감상의 성격이었고, 제5-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2009-2015 교육과정에서는 화자의 관점(가치)을 파악하는 것으로 세밀화되었다.

제7차-2015 교육과정에서는 동시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조 영역에서는 학습독자들이 시조 형식의 보기를 보고 직접 표시하는 활동이 있다. 제5-6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수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조 교육이 참고자료로 제시된 점, 형식에 대한 교육이 세밀화되지 못한 점, 내용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 동시 영역에서는 동시와 시조의 구분이 없고, 학습독자들은 ‘떠오른 느낌(생각) 말하기’ ‘일부분 바꿔 쓰기’ ‘떠오르는 경험(장면) 말하기’ ‘특징적인 표현 찾기’ ‘화자의 관점(가치)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내용 파악과 관련하여 화자의 관점(가치)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다. 제5-6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수용적인 활동의 다양화,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의 세밀화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일관성이 있게 순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시조 교육의 과제

제1-6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제7차-2015 교육과정에서 해소되었다. 하지만 독립된 단원으로서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필요하고, 동시 영역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순서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 영역에서 학습독자들은 느낌 말하기, 경험(장면) 떠올리기, 특징적인 표현 찾기, 일부분 바꿔 쓰기, 화자 관점(가치) 파악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순서가 혼재되어⁷⁶⁾ 일관성이 없다. 화자의 관점(가치)을 파악하는 활동에서도 기준이 필요하다. 학습독자들은 시적화자를 따라 시를 읽다보면 시적화자의 사고를 경험하고 인생의 깊이도 깨닫게 되고⁷⁷⁾ 자신의 생각과 비교도 가능하므로, 시적화자를 통해 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⁷⁸⁾ 시적화자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파악되어야 하고, 상황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도 파악되어야 한다. 상황과 태도의 관련 양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⁷⁹⁾ 이러한 과제는 동시 교육에도 해당되므로 시조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조 교육에서의 과제는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문제이다.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왜 필요한지 설명되어야 하고, 시조 영역에서 시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76) 인물의 마음을 떠올린 다음 느낌을 말하는 것(<염소탕> 『국어 5-2 가』 2009, 6-10면; <등 굽은 나무> 『국어 4-1』 2015, 36-39면; <풀이래요> <허수아비> 『국어 2-2』 2015, 12-17면), 인물의 마음을 떠올린 다음 경험(장면)을 떠올리는 것(<허리 뺏기> 『국어 5-1』 2015, 71-73면) 등이 예이다.

77) 김대행, 『고려시가의 정서』, 새문사, 1990, 8-30면.

78) 윤여탁, 『시 교육론』, 태학사, 2010, 144-147면.

79) 『국어 5-1』(2009), 304면에서는 ‘말하는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는 태도를 관점’이라고 하였고, 『국어 6-1』(2015), 264면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자고 하였다. 학습독자들이 화자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화자(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3.1. 시조 영역의 설정

제1차에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있다가 제7차에서 2009 교육과정까지는 시조 교육이 참고자료로 간주되었다. 2015 교육과정에는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없다. 시조는 시조 영역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시조 영역에서 시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시조가 일반적인 시와 다르게 전통적인 정형 시가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조는 전통 시가이기 때문에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필요하다.

전통 시가이기 때문에 시조에는 전통 문화가 담겨있다. 제1차에서 2015 교육과정까지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에 담겨 있는 전통 문화는 자연과 교훈이다.⁸⁰⁾ 자연을 노래한 작품에는 전통적으로 작자가 자연에서 발견한 이치가 표출되거나 자연에서 흥기된 흥취가 표출된다. 이치의 발견이나 흥취의 표출은 대상과 자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수평적 관계에서 대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대상과의 일체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를 통한 깨달음과 즐거움은 외물과의 접촉에서 생길 수 있는 욕심·분노 등의 감정을 조절하여 성정(性情)을 유지하게 한다.⁸¹⁾ 화자의 감정이 조절된 상태가 작품에서는 주로 ‘한가로움’으로 나타나며, 학습독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감정을 닮아 감정을 조절하기도 한다.⁸²⁾ 수평적 관계에서 자

80) 제1-4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은 53편이고 교훈을 주제로 한 작품이 40편(고시조 33편 현대시조 7편)이고,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이 12편(고시조 3편, 현대시조 9편)이다. 교훈·자연의 주제가 98%이다. 제5-6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은 33편이고 교훈을 주제로 한 작품이 18편(고시조 15편, 현대시조 3편)이고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이 9편(고시조 5편 현대시조 4편)이다. 교훈·자연의 주제가 89%이다. 7차-2015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은 31편이고, 교훈을 주제로 한 작품이 22편(고시조 11편 현대시조 11편)이고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이 7편(현대시조 7편)이다. 교훈·자연의 주제가 94%이다.

81)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82) 서명희, 「시조에서 추구하는 한가로움의 양상과 교육적 의미」, 『교전문학과 교육』

연물을 통한 깨달음이나 즐거움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배우기도 한다.⁸³⁾ 시조에 나타난 자연으로 학습독자들은 타자를 배려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 교훈을 노래한 작품에는 전통적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 개인 성찰에 대한 교훈, 생활 체험에서 생긴 교훈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선전기의 교훈시조에서는 가족·국가에 대한 교훈이 주를 이루지만 조선후기의 교훈시조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할 거향윤리(居鄉倫理)가 강조된다.⁸⁴⁾ 가족·국가에 대한 교훈과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이 모두 전통 문화이다. 개인 성찰이란 개인적인 생활 태도를 되돌아보도록 교훈하는 것이다.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태산이 높다하되>·이황(李滉, 1501-1570)의 <청산은 어찌하여> 등은 나태질 수 있는 태도를 성찰하라고 교훈한 것이고, 김천택(金天澤, 생몰미상)의 <잘 가노라 단지 말며>는 교만스런 태도를 성찰하라고 교훈한 것이고,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는 과욕하는 태도를 성찰하라고 교훈한 것이다.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 개인 성찰에 대한 교훈 등은 오늘날에도 타자를 배려하는 태도나 감정·욕망을 절제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인성 교육에 유효하다. 교훈을 노래한 작품에는 화자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柿歌)>에서 화자는 부모가 없는 자신의 체험을 담아 교훈을 표현하였고, 이숙량(李叔樑, 1519-1592)의 <분천강호가>에서 화자는 집안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수평적인 목소리로 교훈하였고⁸⁵⁾, 정철(鄭澈, 1536-1593)의 <훈민가>에서 작가는 백성들의 평범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수평적 목

』 2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69-106면.

83)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84)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3, 27-46면; 최현재, 「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륜가>」, 『한국시가연구』 10호, 한국시가학회, 2003, 63-100면; 최홍원, 「주세붕 <오륜가>의 표현 전략 연구-교훈시조 작품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4집, 한국언어문화회, 2013, 271-300면.

85)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사, 2003, 185-189면.

소리로 교훈하였다.⁸⁶⁾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수평적 관계에서 교훈하는 것은 학습독자들이 타자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인성 교육에 유효하다.

둘째, 시조는 정형 시가이기 때문에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필요하다.

정해진 틀이 주어짐으로써 학습독자들이 안정감이 있어 시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⁸⁷⁾ 시조는 노래로 불린 시로 노랫말에도 음악성이 있다. 음악성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 학습독자들이 운율을 쉽게 익힐 수 있고,⁸⁸⁾ 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행에서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학습독자들이 청자를 대상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시를 쓰기에도 용이하다.⁸⁹⁾ 시조의 초중장 3장과 종장에서의 종결이라는 형식도 교육적 의미가 있다. 초중장에서는 대상(사물·상황·행동 등)이 제시되고 종장에서는 화자가 대상과 자신과의 유사점을 발견하거나 대상이 지닌 의미를 발견한다. 또는 초중장에서는 갈등을 표출하였다가 종장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갈등을 해소한다. 시조의 형식으로 학습독자들이 발견하는 능력이나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⁹⁰⁾

86)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9, 411-431면.

87) 고영화, 「시조 형식 교육의 목표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7-32면; 염창권, 「한국어과에서 시조교육의 의의와 지도 방안」, 『새국어교육』 12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285-315면.

88) 신현재,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283-307면.

89) 정소연, 「시조의 구술성으로 인한 정서 표출 방식과 시조 교육의 방향」, 『고전문학학 교육』 2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97-124면.

90) 시조의 3장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김대행 교수는 초장에서는 대상이 제시되고 중장에서는 관계를 맺고 종장에서는 대상에 의미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초중장에 대상이 제시되는 시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초장부터 갈등이 표출된 시조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송지인 교수는 초중장과 종장으로 나누어 ‘관찰에서 관조’, ‘갈등에서 조화’, ‘표출에서 공명’의 구조가 있다고 하였다. 초중장에 ‘갈등’이 있는 시조를 다룬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갈등이 조화되는 과정에서의 교육적 의미나 대상이 의미화되거나 관조화되는 과정에서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없다. 필자

3.2. 수용 활동의 기준 설정

시조 교육에서 학습독자들이 수행하게 될 활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학습독자들이 시조 형식을 수용하는 활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4음보이고 종장에서 종결'되는 것이다. 3장과 종장 종결이라는 형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종장에서는 '소음보-과음보'로, 초중장에서의 반복에 변화를 주어 종결의 느낌을 받게 한다. 전술하였듯이 종장에서의 종결이란 형식으로 학습독자들은 발견의 능력이나 성찰의 능력을 기르게 된다. 6구라는 형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6구란 한 행이 2음보씩 반행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한 행에서 전반행과 후반행 사이에는 휴지를 두고 제1음보와 제3음보에 강세를 줌으로써 전반행과 후반행은 대칭적 관계를 이룬다.⁹¹⁾ 이러한 대칭적 관계는 통사구조로 실현되며⁹²⁾ 대칭적 관계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 2007 교육과정의 『읽기 5-1』⁹³⁾에서 유일하게 중간 휴지가 있다. 음수율이나 음보율을 교육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반행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가) 미루나무 그늘 아래 노래하는 쓰르매미 /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으려**

는 시조는 정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 제시와 의미화', '갈등 노출과 해소화'의 구조가 있고, 대상 의미화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능력'의 향상이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고, 갈등 해소화의 과정에서 '성찰하는 능력'의 향상이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김대행, 「시조형식의 의미」, 『시조학논총』 11, 한국시조학회, 1995, 15-21면; 송지연,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줄고, 「시조 형식의 교육적 의미」, 『국어문학』 66집, 국어문학회, 2017, 157-182면.

91)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02-210면.

92) 한 행 4음보의 시가에서 전반행과 후반행의 관계에는 서술어와 서술어의 대등, 서술어와 서술어의 종속,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관형어와 명사 등이 있다. 정한기, 「<추월가> 연구 -서사적·표현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23-143면.

93) 『읽기 5-1』(2007), 34면.

니 벌써 알아 / 나보다 눈치 빠른 놈 내 미미채 언제 봤지.

용호초등 4학년 김일환, <매미>94)

(나) 봄꽃들이 **정답게 나란히** 모여 앉아 / 노래하며 웃으며 사이좋게 얘기
하며 / 내 얼굴 제일 예쁘다고 뽐내며 자랑해요.

우암초등 5학년 박정원, <꽃밭>95)

(가)는 교사의 지도를 받은 뒤에 창작된 초등학생의 작품이고, (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최하는 시조 짓기 대회에서 입상된 작품이다. (가)의 중장에서는 반행 단위의 대칭적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다. 제2, 3음보가 통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의 초장에서도 반행 단위의 대칭적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다. 제2, 3음보가 통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96)

둘째, 학습독자들이 시조 내용을 수용하는 활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조의 전통적인 주제는 자연과 교훈이다. 이 주제가 3장의 형식으로 표출된다.

(다)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너 씨인제 /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비만 밧밧하고 / 석양(夕陽)에 짝 일흔 즐머기는 오락가락 흐
노매97)

(라1)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허여도 농즈(農者)는 못 듯느니 / 백일(白日)
이 중천(中天)허야도 고자(瞽者)는 못느니 / 우리는 이목청명(耳目聰

94) 이숙례, 「효율적인 동시조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22, 한국어문교육학회, 2000, 262면 재인용.

95) 이숙례, 앞의 논문, 263면 재인용.

96) 현대시조에서도 이러한 반행과 반행의 대칭적 관계가 어긋난 경우가 보인다. 임종찬 교수는 2000년대에 발표된 현대시조 가운데에는 수식어가 남용되거나 주술 관계가 불분명하게 사용되어 시조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경우가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임종찬, 「문장구조에서 본 현대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25, 한국시조학회, 2006, 5-27면.

97) 작자미상. 『청구영인』 #305(『시조문학사전』, 448면).

明) 남자(男子)로 농고(農耜) 낫지 마로리⁹⁸⁾

(라2)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희웁고 / 내 므음 둘 데 업서
넛갸에 안자이다 / 저 물도 내 안 갸도다 우리 밤길 네눗다⁹⁹⁾

(다)는 자연이 주제이고 (라)는 교훈이 주제이다.

(다)에서는 연못에 비가 내리자 연못 주위에 있는 버드나무에는 안개가 끼고 연못에는 사공이 없는 빈 배만 매어 있고 그 사이를 석양에 외로운 기러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하였다. 화자는 초중장에서 한 곳을 응시하다가 종장에서 시선을 전환한다. 시선의 전환으로 화자는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초중장에 보이는 대상인 비가 내리는 연못·안개가 낀 버드나무·빈 배 등은 종장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을 초월한 것이란 의미가 된다. 대상 제시와 의미화의 관계이다.

(라1)에서는 천둥소리가 산을 깨뜨릴 정도로 커도 귀머거리의 듣지 못하고, 밝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어도 소경은 보지 못하니 청자는 부지런히 배워 현상을 바르게 보고 듣는 능력을 기르라고 하였다. 천둥소리를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밝은 해를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 등은 사실이다. 초중장에서는 대상의 제시이다. 종장에서는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제시된 대상이 배움의 당위성이란 의미를 띤다. 대상제시와 의미화의 관계이다. (라2)는 왕방연이 의금부도사로 강원도 영월에 유배 중인 노산군(魯山君)에게 사약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초중장에서는 님과 이별하고 넛가에 앉았는데 마음을 둘 데 없다며 이별로 인한 갈등을 표출한다. 종장에서는 넛물도 자신의 마음과 같아 울며 흘러간다고 하였다. 넛물로 슬픔의 주체를 전이함으로써 슬픔을 완화한다. 갈등 표출과 해소의 관계이다. 초중장에서는 이별로 슬프다며 문제

98) 이황(李滉, 1501-1570), <도산십이곡> 제8수. 『청구영언』 #30(『시조문학사전』, 125면).

99) 왕방연(王邦衍, 생몰미상). 『청구영언』 #17(『시조문학사전』, 465면).

를 제기하고 종장에서는 주체를 전이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답을 제시하였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내면에서 묻고 답한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학습독자들은 종장이 종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고, 대상과 의미의 관계로 종결되는 과정이나 갈등과 해소의 관계로 종결되는 과정으로 독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서로 형식과 내용의 연결이 가능하고, 학습독자들의 발견하는 능력이나 성찰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가능하다.

4. 맺음말

본고의 목적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조를 중심으로 시조 교육의 양상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조 교육의 양상이다. 제1-4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감상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시조 영역에서는 학습독자들이 시조를 읽고 마음을 파악하거나 민족적 감정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동시 영역에서는 학습독자들이 시조를 읽고 떠오른 느낌을 말하는 활동을 한다. 제5-6차 교육과정에서는 갈래 지식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시조 영역에서는 시조의 내용·형식에 대한 지식이 학습독자들에게 설명된다. 동시 영역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중심 생각을 찾는 활동을 한다. 제7차-2015 교육과정에서는 동시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이다. 시조 영역에서는 시조의 형식에 대한 교육이 있으나 참고자료로 간주된다. 동시 영역에서는 학습독자들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내용 파악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화자의 관점(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시조 교육의 과제이다. 시조 교육만 독립적으로 다룰 시조 영역에서의 시조 교육이 필요하다. 시조는 전통 정형 시가이다. 전통 시가이기 때문에 학습독자들이 조상들의 전통 문화인 자연과 교훈을 체득할 수 있다. 학습독자들은 시조에 나타난 자연을 통하여 타자를 배려하고 자기를 이해·성찰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고, 교훈을 통하여 타자를

배려하고 감정을 절제하여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 시조는 정형 시가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로 학습독자들이 시를 쓰기에 용이하고, 운율을 익히기에 용이하다. 시조는 3장이고 종장에서 종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능력과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시조 교육에서는 학습독자들이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 활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조의 형식에 대한 교육에서는 '4음보, 종장의 종결, 반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조의 내용에 대한 교육에서는 학습독자들이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의미'의 구조와 학습독자들이 성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갈등-해소'의 구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2.

2. 교과서

군정청학무국·조선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6.

군정청문교부, 『초등국어 6-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7.

문교부, 『초등국어 5-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55.

문교부, 『초등국어 6-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9.

문교부, 『국어 4-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문교부, 『국어 6-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9.

문교부, 『국어 6-2』,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6.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2.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7.

문교부, 『국어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4.

문교부, 『국어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5-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

문교부, 『국민 학교 국어 읽기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2.

교육부, 『국어 읽기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교육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1』,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5-2』,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읽기 6-2』, 미래엔, 201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5-1』, 미래엔, 2013.
 교육부, 『국어 2-2』,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활동 6-1』, 미래엔, 2015.
 교육부, 『국어 3-1』, 미래엔, 2018.
 교육부, 『국어 3-2』, 미래엔, 2018.
 교육부, 『국어 5-1』, 미래엔, 2019.
 교육부, 『국어 6-1』, 미래엔, 2019.

3. 논저

고영화, 「시조 형식 교육의 목표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9, 7-32면.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9, 411-431면.
 김대행, 『고려시가의 정서』, 새문사, 1990, 8-30면.
 김대행, 「시조형식의 의미」, 『시조학논총』 11, 한국시조학회, 1995, 15-21면.
 김명숙, 「초등학교 시조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6.
- 김선희, 「초등학교 시조 교육 활성화 방안」,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38면.
- 김선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시조 교육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6, 115-138면.
-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다운샘, 2003, 27-46면.
- 서명희, 「시조에서 추구하는 한가로움의 양상과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69-106면.
-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02-210면.
- 송지연, 「시조 의미구조의 경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 신현재,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선청어문』 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283-307면.
- 염창권, 「한국어과에서 시조교육의 의의와 지도 방안」, 『새국어교육』 12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285-315면.
- 윤여탁, 『시 교육론』, 태학사, 2010, 144-147면.
-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숙례, 「효율적인 동시조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 교육』 22, 한국어문교육학회, 2000, 243-268면.
- 이정환, 「민족 정서의 이해와 습득을 위한 시조 교육」, 『청람어문교육』 2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3, 197-224면.
- 임종찬, 「문장구조에서 본 현대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25, 한국시조학회, 2006, 5-27면.
- 정소연, 「시조의 구술성으로 인한 정서 표출 방식과 시조 교육의 방향」, 『고전문학과 교육』 2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97-124면.
- 정한기, 「<추월가> 연구 -서사적·표현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23-143면.

- 정한기, 「시조 형식의 교육적 의미」, 『국어문학』 66집, 국어문학회, 2017, 157-182면.
- 조미영, 「초등학교 시조 교재의 구성과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 교육』 34, 한국어문교육학회, 2007, 247-280면.
-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서, 2003, 185-189면.
- 최현재, 「교훈시조의 전통과 박인로의 <오륜가>」, 『한국시가연구』 10호, 한국시가학회, 2003, 63-100면.
-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최홍원, 「주세붕 <오륜가>의 표현 전략 연구-교훈시조 작품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271-300면.

【Abstracts】

The Aspect and Task of Sijo education

Jeong, Hangi · Kim, Yongj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aspect and task of Sijo education. The result is as follow.

The Aspect of Sijo education : For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fourth curriculum, the learner search for the ethnic emotion, search for the poet's heart in the Sijo, talk the feeling of reading the Sijo. Sijo education is that the learner appreciate Sijo work. Form the fifth curriculum to the sixth curriculum, the learner is instructed the contents and form of Sijo. Sijo education is that the learner gain the knowledge of Sijo. Form the seventh curriculum to 2015 curriculum, Sijo education is regarded reference data, the learner does various receptive activity. Sijo education is that the learner regard Sijo as children's poem.

The Task of Sijo education : Sijo education of independent field is necessity. Sijo has traditional culture named nature and lesson. So the learner is able to achieve the ability of self-examination, considering others, modulating the ill feeling. Sijo is the poetry with a fixed form. So the learner easily have practice to write poetry, easily master the rhythm, develop one's abilities of discovering and self-examination. The learner must be learned the 4 metre, conclusion in the last line, half line. The learner must be learned the structure of 'object-meaning' and 'conflict-solving.'

Key words : Sijo, Sij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 book, aspect, task, curriculum.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